

열두번째 이야기

가나에서 누리는 행복



이번에 비오는 수요일 팀에서 만난 분은 현재 가나에서 사역을 진행 중이시고, 지부장회의 참석 차 잠시 한국에 들르신 김용달 선교사님입니다. 보슬비 내리던 날 늦은 오후, 이촌동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카페 조명만큼이나 따뜻했습니다. 이제 섬김의 삶을 통해 성공의 열매까지 거두신 사역의 현장과 선교사님의 삶으로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Q. 사역하시는 나라 가나를 간단히 소개해주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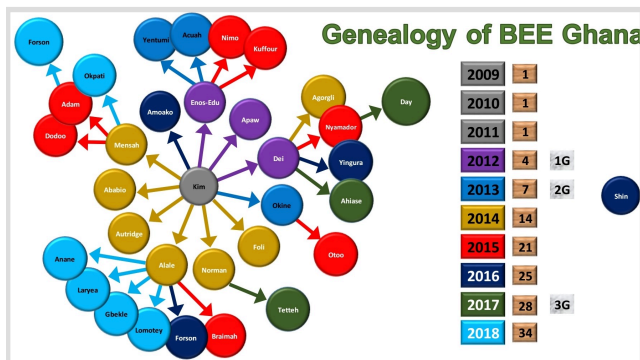
가나는 영국 식민지였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먼저 1957년도에 독립하였습니다. (운명적으로 저의 출생년도와 같습니다^^) 아프리카 식민지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에 대해 자부심이 크구요 대체로 민족성은 평화적이고 순한 편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60%가 넘는 영향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래와 춤을 좋아해서인지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말씀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가나인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나 개관(Daum검색 참조): 서부 아프리카 기니 만 해안에 위치한 가나는 면적이 한반도와 비슷하며 인구는 2,700만명, 언어는 영어와 토착어를 사용한다. 수도는 아크라이며 행정구역은 10개의 주(region)로 되어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달러(서부 아프리카에서는 평균 이상), 주로 광업(금광)과 농업(카카오 수출)에 의존한다.

Q. 초창기 사역은 어떠셨는지요?

전임자 레이첼로부터 가나 사역을 물려받았는데, 그 지역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테마로부터 250km 떨어진 볼타 지역의 워라워라라는 소도시였습니다. 레이첼은 차가 없어 일주일씩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을 진행했지만 저는 차로 이동하고 일주일에 하루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대부분 교사였기 때문에 저녁에만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어서 마치고 나면 그곳에서 자고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미나 한 번에 꼬박 이틀을 보내야 하는 것이 참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중간에 사역할 만한 곳은 없는지 알아보았는데, 다행히 호훼라는 곳에서 목사들만을 대상으로 오전에 사역을 마친 후, 한 곳을 소개받아 오후에 다른 사역지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워라워라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현지인의 집에서 잠을 청한 후(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호훼로 향할 때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마을 풍광들을 지나치면서, 주변 길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몽클한 마음과 온몸을 적시는 전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현지 사역자 배출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들이 자극을 받았는지 서로들 해보겠다고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파엘은 이후 신학을 전공했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구요... 그렇게 2세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3세대, 4세대까지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지난 번 기도모임 때 자료를 도표로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34그룹 274명의 학생이 졸업했고 32명의 인도자가 양성되었습니다.

Q. 그 후 계속된 사역도 이야기해주시면?

이틀 동안 세 곳을 돌며 세미나를 하는 사역을 거의 2년간 계속했더니 드디어 1세대 인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인도자가 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과정을 다 마쳤는데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좀 힘이 빠졌고 기약이 없었지만 새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과의 ‘만남’만큼은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 인도자가 되어보겠다고. 라파엘 아파워라는 친구였는데 목사도 아니었고 평신도지만 목회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전적으로 그 사람을 지원해

Q. 이웃 나라로도 사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가나 사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던 중 2016년에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한인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조문상 선교사님, 백인호 목사님이 함께 수고해주셔서 2년에 걸쳐 DPM과정이 진행되었고 현재 10명의 현지인 인도자가 헌신하셔서, 이분들이 코트디부아르 각지에 흩어져 2세대 그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불어권이라 언어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도 카톨릭이 강세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현지에서 영향력 있고 규모도 큰 교단인 오순절 교단과도 얼마 전에 연결이 되어 온누리교회 및 본부와의 협력 하에 저희 사역을 접목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사역은 크게 보아 두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나 사역과 주변국 사역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전략적 지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들을 중심거점으로 해서 사역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전략적 지역은 저희 BEE KOREA에서 담당하고 확장지역에는 현지인 인도자들(1세대)이 투입되기를 기대합니다. 가나에서는 10개의 주(region)마다 그 주도를 전략적 지역으로 정하려고 하구요 현재 3개 지역의 주도에서 활동하





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도 현재 아비장을 전략적 지역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변국으로는 라이베리아 사역을 논의 중입니다. 그 외에도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Q.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와 가장 힘들었던 때는?

선교사로서 1세대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또한 제자를 양육한다면 대단한 결실이죠. 즉 2세대의 인도자를 양육한 셈인데... 가나에서는 3세대의 인도자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 결실이 나왔는데요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3세대 인도자가 나왔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때라기보다는,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가나 사람들의 ‘짧은 안목’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당장 오늘 눈 앞에 득이 될 것만 생각하는 가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복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곳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노예생활을 오래 한 그들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사역을 마치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행복한 선교사, 행복한 사람...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Q. 스스로 자신의 칭찬거리 한 가지를 고른다면?

열정. 누가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달지 않는 배터리(die hard battery, undying battery)’입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겠죠.

Q. 나에게 BEE란?

말씀으로 인한 회복, 나눔으로 인한 회복... 이런 생각이 듭니다. ‘BEE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예전 친구들 만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를 하느니 마느니 걱정들이 많습니다. 저와는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BEE를 통해 제 삶이 회복되었고 새 생명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요즘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인지?

세미나를 들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이해했다고 느꼈을 때, 그들 중 몇몇이 본인들도 인도자가 되어보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Q. 예지, 예성이가 어떻게 자라나기를 바라나요?

늘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둘 다 선교사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만 스스로 어떠한 삶을 선택하든 그 정체성만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과는 멀리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한 집에서 잠을 자며 가깝게 지내고 돌봐주면서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Q.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한 가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사역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Q. 묘비명으로 쓰고 싶은 말은?

행복하고 열정적이었던 선교사... 내적으로는 행복하고 사명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외적으로는 그것이 열정으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삶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어렸을 때의 꿈은?

과학자, 외교관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학도 물리학을 전공하고 미국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Q. 모태신앙이었나요?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대학 2학년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했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유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도 하나님의 책으로 믿어졌고 마침 친구의 권유로 영접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 유학생생활을 통해 공부를 계속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Q. 대학 전공과정이 사역에 도움이 된 것은 없었나요?

물리학 전공이라서 사역에 직접 도움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구요, 간접적인 도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첫째로는, 어려서 힘든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제 안에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학위를 받기까지 공부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사역 초기에 저의 그러한 경력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간의 미국 유학생생활을 통해 영어를 익숙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현재 사역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있죠.

젊어서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으로는 시간을 낭비하고 우회하는 인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현재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후회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Q. BEE 가족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는?

우선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언제 찾아와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BEE의 말씀사역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시대에 BEE KOREA가 있었고 그 사람들은 말씀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는 후대의 평가가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재능이 앞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혼자 외롭게 달려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큰 그림을 품고 크게 걷고 함께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 톨 한 톨 뿌린 씨앗이 이제 자라나 작은 나무를 이루고 큰 나무가 될 것을 소망하는 김용달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랫동안 결혼 전부터 이 가정을 지켜본 필자로서는,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두 분 선교사님이 BEE에서 만나시고 아프리카 땅으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복음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러하구나’ 라는 깨달음이 밀려옵니다. (글: 김종영, 편집: 이경주)



김용달 선교사는, 2009년 8월 가나 선교사로 파송받고 현재 10년째 사역. 가족으로는 아내 강혜경 선교사, 딸 예지(예수님의 지혜, 6학년), 아들 예성(예수님의 성품, 3학년). 햇불트리니티신대원을 졸업하고 온누리교회와 BEE KOREA 파송 선교사로 활동 중. 건강이 다하는 날까지, 가나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가나에서 행복을 누리실 예정입니다^^

BEE 소식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1차 마감일 6월 9일입니다. 많은 비 가족이 참여하여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선교의 현장을 목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여름 방학 특강이 기획되고 홈페이지에 공지되었습니다. 방학에도 쉬지 않고 말씀으로 은혜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